

건강하게 사는 약속 인하대병원이 이루어갑니다

인하대 병원

www.inha.com

11·12

2008 Nov·Dec Vol.72



2008. 11+12

CONTENTS

Nov. Dec Vol. 72

05	월례조회사	만족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이 행복해지는 방법
07	Well-being Report	장수하려면 제주로 옵서예!
10	의학정보 1	사이버나이프로 청력 회복시켜
12	의학정보 2	감기처럼 위장한 기도의 만성 염증인 천식
14	의학정보 3	건선과 피부건조증
16	기획인터뷰	내 몸에 꼭 맞는 운동으로 건강한 삶을 드립니다!
19	병원연수기	새롭고, 실용적인 정교한 치료법 배워
20	감사의 편지	"이젠 카메라 앞에서 V자도 할 수 있어요~"
22	글이 머무는 풍경	왕짱인 노(老)바디 팀, 앤돌핀 분비의 위력! 하얀 수증기 속에서 튀밥 쪼던 뽕튀기의 추억 우리아이 아침 인사는 "엄마 몇 시에 와?"
26	직장생활 에티켓	"여자같이 생겨서 힘 쓸 수 있겠어?" 도 성희롱
28	톡톡약물상담	착 붙이는 약 패치제 효과 딱 나게 하려면?
29	119 응급상황	추운 계절 야외활동, 방한 장비 챙기세요!
30	금융정보	불안한 시장에서의 펀드투자 전략
32	협력병원 탐방	현대유비스병원
33	병원소식	인하대병원소식
36	알립니다	파랑새소식 / 인사동정 / 자원봉사안내 / 사회복지소식 Global Inha / 퀴즈 퀴즈 제46회 / 무료공개 강좌

아름다운 관계

장용철 | 시인

별은 꽃에게서 꿀을 따지만 꽃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매를 맺을수 있도록 꽃을 도와 줍니다

사람들도 남으로부터 자기가 필요한 것을 취하면서
상처를 남기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것만을 취하기 급급하여 남에게 상처를 내면 그 상처가 짝어
결국 내가 취할 근원조차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꽃과 벌 같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엔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가득하지 않을까요

그대의 몸 안에 가슴 속에 사랑의 우물을 깊이 파 놓으십시오
그리고 아낌 없이 나누어 주십시오

행복감은 훈련 통해 높일 수 있어 만족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이 행복해지는 방법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

우리 병원의 새 식구가 되신 교직원 여러분을 환영하며 우리모두 따뜻이 맞으시기 바랍니다.

조회나 Notes를 통하여 병원에서 진행되는 일이나 행사, 정책 등을 알려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외부 컨설팅으로 시행한 노무진단 결과를 보니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잘 모르는 분이 많고,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교직원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경영설명회도 갖고 Notes에 매월 경영실적을 올리고 있으니 실적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직접 개폐하는 직원 소리함도 적극 활용하시어 애로사항이나 제안 등을 많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이 있는 날입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버락 오바마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직도 케냐에 살고 있고, 미국으로 이민 온 지 2대도 안 되어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 있는 땅이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 좋은 관계가 맺어졌음 하는 바람입니다.

9월 조회 이후 있었던 크고 작은 행사들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뇨비만 센터 개소
2. 인천 핸드볼 협회와 지정병원 협약체결 및 우생순과 함께하는 사인회
3. 건강 문화 최고경영자과정 입과식
4. 건강 문화 최고경영자과정 주치의 및 주치간호사 결연식
5. 전공의 년차별 워크숍

6. 몽골 국립 제1,2병원 진료협약 체결
7. 1004 day 개최
8. 호미오세라피(주) 성체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취득
9. 인천지역 여러 축제의 의료지원
10. 교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11. 몽골 산자 바야르 총리 본원 방문 및 종합검진 수진
12. 중국 청도 성양 인민병원 진료환경 확인방문 및 진료준비
13. 일본 니이가타 대학 총장 초청 강연
14. 지구촌 한가족 캠페인 일환 환자 진료 계속(대한항공, 헬스조선공동)
15. QI 특강
16. 자원봉사자 야유회
17. 미군 121병원 관계자 MOU체결 전 본원 방문
18. 영문 Homepage Open
19. Cyber 교육 및 영어 강좌 시작
20. 직원 A형 간염 및 Influenza예방 접종
21. 3층 기도실 개설
22. 심혈관 Angiogram 가동
23. 전화 교환기 증설 교체 작업 중
24. 전산Server D/B Upgrade 작업 등의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교직원 한마음 체육대회에는 개원 이래 가장 많은 900여 명의 직원과 가족들이 참석하여 함께 달리고, 차고, 텀고 열사 안았으며, 조별 장기자랑 등을 통하여 마음껏 웃고 화합하여 우리 병원의 저력을 또 한 번 보여주는 한마음 한마당이었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전 교직원께 깊이 감사 드리며,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준비위원들과 총무팀에도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로 외환위기는 벗어나는 듯 하지만 실물경제의 장기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병원경영이 더욱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다가,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를 1.93% 인상하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 오늘 아침 입원 실적은 94%가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9월 실적은 93.5%를 달성하였으며, 10월 실적은 94.5% 달성했습니다. 목표에는 미달하였지만 좋은 실적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교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시행하기로 계획한 의료장비 도입도 금융 캐피탈 회사들의 리스 중단으로 당분간 시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모 대학병원은 상여금 지급이 지연되고 급여 인상분 지급은 연기하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도 들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모두 각오를 새롭게 하고 단합하여 지혜를 모아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5월 조회 때는 부모자식간의 사랑 storge에 대하여 말씀 드렸고, 7월은 친구, 이웃과의 사랑 philos에 대하여 말씀 드렸는데 오늘은 행복과 돈에 대하여 말씀 드리려 합니다.

얼마 전 타 대학의 후배 교수가 어떤 모임에서 뜬금없이 저에게 “선생님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하고 물었더니 대답인즉 “우리 민족이 역사 이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만큼 잘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이만하면 모두 잘 먹고, 잘 입고, 문명을 누리며 자유를 만끽하고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선생님은 훌륭한 사회적 지위도 얻으셨고, 건강하시고 자식도 다 교육시켜 가정을 이루게 하였고, 건강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적당히 살아가실 만큼 여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사셨다고 할 수 있지 않으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삶을 뒤돌아 볼 때도 종종 있었지만, 그 말을 듣고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즈음의 세태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듯합니다. 가난하면 행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 가난도 생각 나름입니다.

세네카는 ‘조금밖에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이 가난하다’ 라고 합니다. 지족자부(知足者富)라는 말도 있는데 부자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좋은 생각』 9월호에 서울고법 윤재윤 판사가 쓴 글을 인용하면 세계적으로 행복학 연구 붐을 이루고 있는데, 행복의 핵심요소는 가까운 가족과 친구, 가치 있는 일과 긍정적 심리 등이며 행복감은 훈련을 통하여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돈에 관한 것인데 끼니 걱정을 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고 생계가 보장되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소득이 오르는 만큼 행복지수도 따라 오르지만 그 수준을 지나면 소득이 올라도 행복지수는 별로 오르지 않는 현상이 어느 사회에서나 확인된다고 합니다.

무리하게 돈을 벌려고 애쓰는 것보다 적더라도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이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작자 미상의 ‘신과의 인터뷰’ 라는 제목의 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하고 신에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 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 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 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교직원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

2008년 11월 5일

인하대병원 병원장 박 승 립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한다. 그러나 장수는 가치 있고 행복한, 보람된 삶을 사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노화연구, 장수복지, 장수산업 및 장수문화 등에 대하여 연구를 하며 행정, 재정적 지원 계획에 있는 제주는 그야말로 진정한 장수의 삶을 지향하고 있는 곳이다. 85세의 할머니 해녀도 있다는 불로초의 섬 제주의 장수비결을 알아보자.

청정자연환경이 주는 식습관과 끊임없는 움직임
장수하려면 제주로 옵서예!



Jeju



제주도에 가면 아직도 85세 된 할머니가 바다에서 해녀로 활동을 하고 있고 90세 이상 된 노인들이 밀감 수확에 한창인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장수도가 높은 지역이다.

지난 2007년도 현재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85세 이상 인구 비율이 8.74%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장수촌이다. 또 타 지역과 달리 제주발전연구원 부서로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가 있어 제주장수문화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며 제주의 장수 이미지 개발 프로그램에 여념이 없다.

역사적 기록(남한박물지, 1704)에 따르면 제주목사 이형상 목사의 경로잔치에 백세 노인이 3명, 90대 노인이 23명, 그리고

80대 노인이 183명 초대되었다는 기록이 전해질 정도이다. 이렇듯 제주는 역사적이나 현실적인 인구학적 구성으로 보더라도 '장수의 섬'이 틀림없다.

제주노인들의 식습관은 나물된장국과 삶은 돼지고기

역시 제주의 장수노인들은 깨끗한 물과 공기가 있는 청정 자연환경인 해안가 마을, 농어촌 지역, 그리고 중산간 지대 마을에 거주한다.

제주 장수노인들의 식습관은 청정자연 환경에서 생산된 배추, 상추, 깻잎, 콩잎 등의 채소류와 미역, 톳, 모자반, 청각 등의 해초류와 자리돔, 옥돔, 조기 등의 생선류 등과 전통발효식품을 골고루 먹는다.

특이할만한 것은 나물된장국과 미역, 톳, 밀감 등의 과일 그리고 삶은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다는 것이다.

청정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깨끗한 공기와 물이 좋은 곳에서 생산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제





주의 장수비결이다. 자연이 주는 환경이 장수에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알 수 있다. 또 제주 노인들의 흡연과 음주는 거의 하지 않는 절제된 생활도 장수비결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제주의 장수노인들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한다는 생각이 강하여 90세 이상이 되어도 밭에 나가 당근, 감자 농사일에 참여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또 생활력과 자립심이 강하여 자녀에게 가능한 의존하지 않고 생활해 나가는 삶을 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는 1~2시간이면 만날 수 있는 지리적 접근성을 갖고 있어 가족관계의 친밀감과 사회적 관계를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장수비결 중 하나로 생각된다.

뜨는 장수의 섬, 제주... 가치 있고 행복한 장수마을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수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불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육성하여 장수의 섬 이미지 브랜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장수마을에 대해서는 장수마을 선포식, 관광코스로의 연계, 장수마을 생산물 판매, 장수문화 체험프로그램 등의 장수마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장수 이미지 개발,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 국내외 장수지역과 교류사업, 장수인축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곧 여행지로의 장수 섬인 제주를 보게 될 것이다.

제주도는 장수노인들에게 보다 가치 있고 행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주는 제도적 장치에 산학 연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삶의 보람을 느끼는 장수마을로 거듭날 것이다. 역시 비싼 보양식이나 보약이 아닌 청정자연 환경이 주는 식습관과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일한다는 강한 노동관이 제주를 장수의 섬으로 이끈 비결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체계적인 정책 속에 안정된 장수의 삶을 사는 제주를 그려본다.

글 · 이정희 | 자유기고가 (자료협조 : 제주발전연구원, 사진제공 : 해녀박물관, 대정읍사무소)



베토벤 바이러스



[사진제공 : (주)유니버설레코드]

BEETHOVEN BIRUS

베토벤 바이러스, 두루미의 청신경초종

사이버나이프로 청력 회복시켜

우리 부부는 TV 연속극 보기를 아주 좋아한다. 특히 지난 몇 달간 수요일 목요일 밤 10시경이면 TV 앞에 앉아 마냥 행복해 하면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았다.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베토벤 바이러스 때문이다.

매일 불륜 아니면 조폭이 나오는 드라마에 식상해 있던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던 클래식 음악을 가깝게 해준 신선한 장르의 미니 시리즈였기에 첫회부터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지휘자보다도 더 지휘자답게 강마에스트로 역을 연기한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가 있어 더욱 재미있었던 것 같다.

드라마에 나타난 청신경초종 옥의 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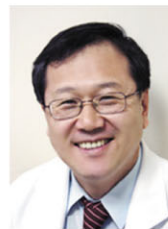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베토벤 바이러스가 종영이 되었다고 한다. 모두들 강마에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 했지만 나는 두루미가 사실 궁금했다. 오케스트라의 탄생 중심에 있으면서 강마에, 작은 강건우와 삼각 러브

라인을 형성하였고 자신의 청력에 대한 저주를 묵묵히 받아 들이면서 또 다른 음악의 꿈을 이루고 있는 진짜 베토벤 같은 여주인공...

왜냐하면 그녀의 청력에 대한 저주는 드라마에서 청신경종이란 질병의 형태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녀의 청력에 이상이 생기고 강마에의 친구인 의사에 의해 청력 소실의 원인이 청신경종으로 진단 받고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게 되면 남아 있는 청력을 보존하기조차 어려워므로 수술을 포기한 채 남아있는 마지막 청력을 음악을 위해 쏟아 붓는다는 설정이다.

여기서 의사의 직업 의식이 발동하여 옥의 티를 찾기 시작한다. 첫번째 가능성 있는 옥의 티는 두루미가 청신경

박현선 교수 | 신경외과
 • 전문분야 : 뇌종양, 뇌혈관기형, 뇌동맥류,
 경동맥혈관증, 모야모야병
 • 진료시간 : 오전(월, 화, 목) 오후(목)
 • 문의 : 신경외과 ☎032-890-2370
 사이버나이프센터 ☎032-890-3076



중(청신경초종)으로 인해 전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청력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청신경초종은 한쪽만을 침범하게 된다. 즉 청신경초종으로 인해 한쪽 청신경이 기능을 잃는다 해도 다른 쪽이 건강하다면 청력을 완전히 잃을 수는 없는 것이다.

청력을 완전히 잃기 위해서는 청신경초종이 양측으로 발생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까? 청신경초종이 양측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유전적이며 제2형 신경섬유종증의 한 형태로 나타난다. 신경섬유종증 제2형에 관련된 청신경초종은 산발성유형의 청신경초종에 비해 일반적으로 종양의 성장속도가 빠르고 청신경을 침범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종양의 제거가 어렵고 수술 후 청력보존이 매우 어렵다.

제2형 신경 섬유종증의 또다른 특징은 수막종, 신경교종, 척수 종양, 백내장, 피부 종양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21세 이전에 발병하며 제1형과 달리 피부 병변(밀크 커피색 반점)의 발현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두루미의 경우 이 제2형 신경 섬유종증이었던 것일까? 작가의 의도는 알 수 없지만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두루미에게 간절히 권해주고 싶은 치료

드라마를 보면서 두루미처럼 치료를 포기하는 쪽으로 선택할까봐 많은 걱정이 되었다. 청신경초종의 치료 방법에는 그냥 두루미처럼 관찰하면서 두고 보는 방법, 미세 현미경수술 방법, 방사선 수술(사이버나이프, 감마 나이프, 노발리스)을 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두루미와 같은 경우 강마에 친구인 의사는 수술만을 권할 수 밖에 없었을까?

청신경초종의 치료는 산발성이건 신경섬유종증의 한 형태로 나타나건 간에 청력 보존과 안면 신경을 보존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된다. 물론 종양의 크기가 아주 커진 경우에는 생명 보존이 급선무이겠지만 말이다. 두루미와 같이 청력이 계속 나빠지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드라마 속에서 나는 두루미에게 간절히 권해주고 싶은 치료가 있었다. 바로 사이버나이프이다. 사이버나이프는 방사선 수술 중 가장 최신 첨단 기법을 탑재한 기기이다. 기존의 방사선 수술 장치의 제한점 중 하나는 머리에 틀을 고정기 위해 핀을 삽입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양의 모양이 불규칙한 경우 종양내에 고르게 방사선을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나이프는 매우 고무적이다. 즉 머리에 핀을 삽입하지 않아도 되고, 종양의 모양이 불규칙 하더라도 종양 전체에 고르게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분할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면 신경, 청신경, 삼차 신경 등의 보존 확률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사이버 나이프는 기존의 수술 치료와 비교할 때는 물론 기존의 방사선 수술과 비교하여도 청력 보존율에서 우수한 성적이 보고 되고 있다.

방사선 수술의 장점은 머리를 열지 않고 수술하므로 입원이 필요 없고 치료 후 1~2일 뒤에는 일에 복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장점은 수술과는 다르게 치료자에 의한 치료성적의 편차가 적어 그 결과를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사이버나이프는 적절한 크기의 종양인 경우 그 치료율과 청력 보존율에서 미세 현미경 수술이나 다른 방사선 수술보다 월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가 작가였다면 두루미가 사이버나이프 치료로 청신경초종을 극복하고 청력을 회복하는 최고의 해피엔딩으로 대본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다.

찬바람이 불면 심해지는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감기처럼 위장한 기도의 만성 염증인 천식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우리나라 기후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예년에는 추석 무렵이면 가을 풍경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는 10월 끝자락이 되어서야 가을다운 날씨이다. 비록 여름이 길어졌어도 가을로 바뀌는 환절기의 특성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아침 기온은 내려가 제법 쌀쌀한데도 낮에는 기온이 높다.

매년 이맘때면 진료실 앞 대기실은 북새통을 이룬다. 감기뿐 아니라 감기처럼 위장한 갖가지 호흡기 질환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큰 일교차, 차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잘 걸리는 환절기 감기 또한 아이들에서 알레르기비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며칠 전에도 4학년 남아가 아버지와 함께 진료실에 들어왔다. 청진기를 대지 않아도 쉼쉼거리는 숨소리가 들렸다. 어젯밤에 숨쉬기 힘들지 않았냐고 묻자 사흘째 밤마다 숨이 차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했다. 찬바람이 불면서 이런 아이들이 상당수다. 이들 중에는 처음으로 천식이라는 진단을 받은 아이도 있다. 하지만 기관지가 좋지 않다거나 천식 기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증상이 있을 때마다 약물 치료 등으로 호전을 보였기에 천식 조절제를 투약하지 않다가 심해진 아동이 대부분이다.

천식의 특징

천식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키는 특정 원인이 있는 알레

르기 천식과 특정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내인성 천식 모두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평상시에 감기에 걸리지 않아도 기침을 한다. 기침이 심하지는 않고 아침에만 하는 경우도 많다. 찬바람을 쐬면 어김없이 기침을 한다. 뛰거나 울거나 웃어도 기침을 한다. 이러다가 감기에 걸리면 기침, 가래가 심해지고, 호흡곤란이나 쉼쉼거리는 숨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천식이란 기도의 만성 염증으로 인해 기침이나 가래, 호흡곤란 혹은 숨쉴 때 쉼쉼거리는 천명 등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거한 특성을 보이거나, 기침이 3주 이상 지속되거나 감기에 걸릴 때 마다 기관지염이 생긴다면 천식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

영유아 천식의 특징

영유아 천식도 큰 아이들이나 성인과 마찬가지로 기도염증, 기도 과민반응, 기도 수축의 주요한 세 가지 특성



김정희 교수 | 소아청소년과

• 전문분야 :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 진료시간 : 오전(월, 수), 오후(화, 금)
• 문의 : 소아청소년과 ☎032-890-2260

을 갖는다. 그러나 영유아는 폐기능 검사를 실시하기 어렵고 기도가 작아 천식 이외에도 기도가 좁아지는 다른 질환으로 인해 기침이나 쌉쌉 거리는 천명 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천식 진단을 하기 이전에 다른 질환을 감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영유아가 반복적으로 쌉쌉 거리는 호흡음이 있을 때 고려해야 할 질환으로는 천식 이외에도 이물흡인, 선천적 기도 기형, 대혈관의 해부학적 이상, 선천성 심질환, 바이러스 호흡기 감염, 반복 흡인, 면역 결핍질환, 섬모 운동이상, 종격동 종양, 위식도 역류, 그리고 비부비동염 등이 있다.

천식 조절제의 사용

영유아는 호흡기도 자라는 중이므로 연장아보다도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다. 수면 장애를 동반한 쌉쌉 거림이 세 번이상 발생하였다면 다른 질환여부를 감별한 이후에 천식 조절제를 사용할지 결정한다. 특히나 부모 중에 천식이 있거나, 아이가 아토피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비염을 가지고 있으면서 반복적으로 쌉쌉거리고 감기에 걸리지 않을 때에도 쌉쌉 거린다면, 그리고 3세 이후까지도 증상이 지속될 때에는 조절제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조절제란 호흡기 증상만을 좋게 하는 증상완화제로서는 치료가 되지 않는 기도의 염증을 치료하는 약물이다. 증상만을 개선하는 약제는 당장의 호흡기 증상은 좋게 하지만 근본적인 천식 치료제는 아니다. 조절제는 기도의 염증을 치료함으로써 이로 인한 증상을 조절하는 약이다. 당연히 천식치료에는 장기간의 조절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가라 앉게 하는 약물사용에는 별 거부감이 없다가도 조절제를 사용하자고 하면 '아기한테 그런 약을 쓰면 면역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약을 오래 먹어도 크는데 지장을 주지 않을까요?' 하면서 주저하는 부모들이 많다. 그나마 이렇게 물어 주는 경우에는 다행이어서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가 되면 대부분 치료에 동의한다. 문제는 질문도 하지 않은 채 스스로 판단하거나 주위의 잘못된 조언이나 검증되지 않은 유해한 건강정보를 믿고 아이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이다.

천식의 치료 예후

분명하게 밝히면 천식이 조절되지 않아 증상이 자주 악화된 아이들의 성인기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은 아이들의 키보다 작다는 사실이다. 천식 아이들이 흡입용 스테로이드를 오래 동안 사용해도 보통아이들처럼 가족을 통해 예측되어진 키만큼 자란다. 따라서 흡입용 약제만으로 조절이 잘된다면 키 걱정은 안해도 된다. 일시적으로 증상이 심할 때 사용하는 스테로이드제를 제외하면 싱글레어나 오논 등의 먹는 조절제는 호르몬제가 아니므로 키를 포함한 내분비계통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천식 약제가 면역을 억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천식이 잘 조절되면 감기도 적게 걸린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치료 약제 중에서 아이에게 부작용이 없으면서 좋은 효과를 보이는 약물을 찾아서 꾸준히 치료함으로써 천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아이들과 동일하게 활동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천식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대부분 잘 조절되고 상당수에서는 완치도 가능하므로 방치하지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도 말고 꾸준히 치료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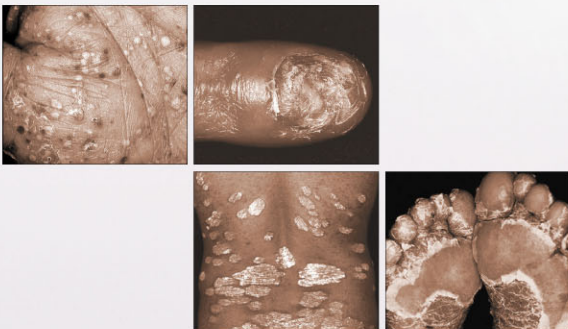
찬바람이 불면 심해지는 피부 질환 건선과 피부건조증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가을인가 싶었는데, 어느새 겨울이 성큼 다가와있습니다.

겨울.. 하면 스산한 바람과 옷깃을 여미고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앙상한 나뭇가지, 회색 하늘이 떠오르겠지만, 피부과 의사에게는 특별히 자주 보게 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바로 건선과 피부건조증입니다.

건선의 증상과 원인

건선은 피부에 붉은 색의 반점이 생기고 하얀 비늘 같은 각질이 두껍게 앉는 피부질환입니다. 주로 팔, 다리, 특히 팔꿈치, 무릎, 엉덩이에 잘 발생하나 몸 어느 곳이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발바닥에 농포성으로 발생하거나, 손톱 발톱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래사진참조). 보통은 가렵지 않지만 가려울 수도 있습니다. 건선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전적 요인이 숨어있는 사람에게서 개인의 생활/환경적인 요소가 질환의 발생을 자극하게 되면, 면역학적 이상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유발 요인은 감염입니다. 특히 베타-용혈성 연쇄상구균에 의한 편도선염은 가장 널리 알려진 원인입니다. 목감기를 심하게 앓고 난 후에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병변의 크기가 작고 물방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 여러가지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과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부의 외상도 주요한 유발 인자입니다. 다친 부위가 잘 아물지 않으면서 건선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차고 건조한 기후(겨울)와 건조한 피부는 건선을 악화시키며, 몇몇 약물에도 의해서도 건선이 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건선의 치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건선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신정현 교수 | 피부과

• 전문분야 : 아토피피부염, 알러지, 색소질환,
레이저, 두드러기, 피부미용

• 진료시간 : 오전(수, 금) 오후(월, 화),
레이저(금 오후)

• 문의 : 피부과 ☎032-890-2230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나와있는 건선 병변을 없애고 다시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병변의 위치와 개수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질환이 가벼운 경우에는 대개 국소 치료를 시행하며, 광범위한 경우에는 광선치료를 병행하거나, 약물을 먹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롭게 생물학적제제 (Alefacept, Efalizumab, Etanercept, Infliximab 등)가 등장하여 다른 치료에 듣지 않는 심한 경우나 건선 관절염이 동반된 경우에 큰 부작용 없이 좋은 치료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국소 치료에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연고는 효과는 빠르나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피부가 얇아지고 쉽게 멍이 드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합니다. 대개는 비타민 D유도체와 스테로이드 연고를 병용하여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광선치료는 UVA, UVB 를 사용하는데, 보통은 광선치료 효과를 높이는 약인 광감작제를 먹거나 바르고 UVA 를 시행하거나, 단일 파장 UVB 를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엑시머 레이저가 개발되어 보다 강한 광선을 일시에 조사할 수 있어 치료가 빠른 장점이 있으나, 조사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좁고 비용이 높은 것이 단점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잘되지 않을 때, 특히 심한 전신성 건선이나 피부가 마구 벗겨지는 박탈성 건선, 손발바닥의 농포성 건선은 먹는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방법들을 한 가지만 사용하기 보다는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입니다.

건선 환자의 일상 생활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피부 외상을 피하고, 건조

하지 않도록 합니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감기 예방에 힘쓰고 약을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당한 운동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단, 운동 하는 것을 재미있어 해야겠지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면 그것 또한 스트레스이니깐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 병변이 크게 판처럼 나타나는 경우에 판상 건선이라고 하는데, 판상 건선 환자들은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심장병 등의 성인병에 걸릴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때 엽산을 복용하면 그 가능성이 적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엽산을 예방적으로 복용하기를 권하기도 합니다.

피부 건조증

피부 건조증은 건선 환자뿐만 아니라, 아토피 피부염, 노년층,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 전신 질환자들에게 흔한데, 단지 건조한 것뿐만 아니라 미세한 비늘이 있고 피부 표면이 갈라지기도 하며, 피부가 거칠고 가렵고 따가워질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이차적으로 자극성 피부염에 잘 걸리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목욕을 너무 자주, 오래, 하지 않아야 합니다. 목욕할 때 건조한 부위에는 비누칠을 하지 않거나 적게 하고 땀이 많이 차는 부위 위주로 비누칠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목욕물의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합니다. 때수건의 사용은 금물입니다. 목욕 즉시 보습제(바디 로션, Bath Oil, 오트밀 팩)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추운 겨울에도 건조하지 않은 피부를 위해 준비 되셨겠지요?

당뇨병과 비만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전문 치료가 필요하여 올 8월 병원 2층에 당뇨 내분비센터와 비만센터로 이루어진 당뇨비만센터가 개설되었습니다. 당뇨비만 센터 의료진 중에는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운동처방사’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운동처방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21세기 접어들면서 운동처방사라는 직업은 미래 유망직종으로 늘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방의학으로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들 트레이너로 혼동하기도 합니다. 운동처방사는 일반인 뿐 아니라 질환자를 대상으로 나이, 체력, 생활습관, 건강상태에 따라 체계적이고 적합한 운동을 처방합니다.

운동처방사는 운동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나 마음이나 시간의 문제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상담을 통한 동기 부여와 그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처방함으로써 효과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최석인 운동처방사
당뇨비만센터

당뇨비만센터 최석인 운동처방사

내 몸에 꼭 맞는 운동으로 건강한 삶을 드립니다!



운동처방사를 선택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학부를 마치고 여군 장교 보병 사관후보생으로 입교하여 훈련을 받던 중, 각개전투수업에서 무릎을 다쳐 임관 전 퇴교하게 됐습니다. 건강에 자신 있었던 저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의 꿈을 이룬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쳤던 무릎은 제가 더 튼튼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었고, 상했던 마음은 제가 재활과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자연스레 대학원에서 스포츠 의학을 전공하며 운동처방사의 길을 걷을 수 있게 이끌어주었습니다.

인하대병원 당뇨비만센터 운동처방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일반과정은 석사학위과정을 마쳐야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일 년에 한 번 시행하는 생활체육지도자 1급 운동처방연수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3개월의 연수과정을 거치게 되고, 최종검정시험에 합격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생활체육지도자 1급-운동처방 자격을 얻게 됩니다(현재 국가에서 발행되는 유일한 자격입니다). 그 후 병원, 보건소, 체력센터 등에서 운동처방 업무를 담당했고, 지난 9월 우리병원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처방사로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고객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예식장에 아빠 손을 잡고 입장하고 싶었던 예비신부가 아버님을 모시고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40대 이후 가벼운 비만으로 시작됐던 그분은 세월이 흐르며 고혈압에 이어, 심근경색으로 시술까지 받으셨던 분이셨습니다. 따님의 간곡한 부탁에 이미 운동하기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아버님께 한 시간 이상의 긴 상담을 통해 첫 운동처방을 시작했고, 6개월 뒤 멋지고 날씬한 아버님(허리 5inch 감소)과 아름다운 따님의 결혼식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엔 본인 스스로가 마라톤 마니아인 동시에 모든 운동도 능한데 굳이 운동처방이 필요하겠느냐며 질문하셨던 분께, 그 분이 앓고 있는 당뇨병과 비만 그리고 약한 하체를 보완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해 드렸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거라며...,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느냐는 미소 가득한 인사를 받았습니다.

일반인들에게 권하고 싶은 운동 또는 운동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운동 강도, 종류, 시간, 빈도가 운동처방의 기본이 되었지만 요즘엔 얼마나 즐기면서 할 수 있는지 ENJOY가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체력, 질병유무에 따라 반드시 삼가야 할 운동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본인에게 필요한 운동 중 재미있게 하실 수 있는 운동을 찾아야 합니다. 운동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습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량을 늘려 기초대사량을 높여 놓는 것은, 100M달리기시합에서 20M정도 선출발하는 것과 같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만큼 건강과 체중조절에 필수적 요소입니다.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선생님의 근육비율이 궁금하네요(웃음)

전 일반인에 비해 체지방률이 낮고 근육량은 높습니다(얼마 전 whole body dexama검사를 통해 측정된 체지방률은 20%입니다).

요즘은 시간이 없는 관계(모든 사람이 하는 변명이죠...)로 유산소운동은 거의 못하고, 가벼운 도구들을 이용한 프리웨이트를 주로 하면서 중심근육(core muscle)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육을 강화시킴으로 뼈를 단단하게 받쳐주게 되고, 여러 근골격계 사고나 질환의 위험을 낮춰주며, 쉽게 피로를 느끼지 않는 체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 주세요

당뇨비만센타 개소 이후 한마음체육대회 경품추첨에서 드럼세탁기를 받은 걸 보면 저와 인하대병원이 좋은 인연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운동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고 나아가서 운동부족으로 인한 또 다른 질병을 예방하며, 그러한 습관이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도 큰 기쁨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몽골에선 불가능한 새롭고, 실용적인 정교한 치료법 배워

저는 몽골의 울란바타르에 있는 샤스틴 병원의 영상의학과에서 일하고 있으며, 제 이름은 바타르잔 노타입니다.

저는 이종욱 펠로우십(Fellowship)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에서 한국의 전문적인 의료기술을 배우고 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저에게 따뜻한 환대와 지원을 해주신 이두익 의료원장님과, 임명관 영상의학과 교수님, 그리고 다른 의사선생님, 교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제 주의를 끌었던 첫 번째 일은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존경을 다해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은 매우 예의 바르고, 이타적이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널리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임명관 교수님, 편해욱 교수님과 함께 일할 때 교수님들의 격려와 충고 속에서 그러한 점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수를 하는 동안 저는 인하대병원의 현대적인 기술과 장비, 그리고 정확한 진단 방법, PACS 시스템을 배울 수 있었으며, 또한 의사들과 기사들이 맡은 분야에서 쌓은 높은 성과와 방대한 지식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펠로우십 프로그램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몽골에선 아직 불가능한 새롭고, 실용적이며, 정교한 치료 방법들을 배울 수 있어서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서 연수를 받을 기회가 또 한 번 생긴다면, 저는 인하대병원에 다시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BAATARJAN Nota (MD) 01 Sep, 2008

Inha University Hospital Training Program



▲ 사진 왼쪽이 바타르잔 노타, 우측이 임명관 교수





지구촌 한가족 캠페인에 참가한 아디아슈렌

“이젠 카메라 앞에서 V자도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몽골에서 온 엔흐자르갈이 인사드립니다.

우리 몽골인들은 자녀의 이름에 축복을 비는 뜻으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의 이름엔 행복, 행운이라는 뜻의 '자르갈'이 있으며 평화, 평강의 뜻을 지닌 '엔흐'가 있습니다. 정말 제 이름의 뜻이 '지구촌 한가족 캠페인'을 통해서 이뤄진 것 같습니다. 조카가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Daum'에 있는 결혼 이민자들의 카페를 통해서 본 캠페인을 처음 알고 사연을 보낸지 벌써 3달이 지나갔네요.

이제 우리 예쁜 조카가 인하대병원에서 두 번의 수술을 잘 마치고 몽골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국에 있는 몽골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항공료와 수술비 지원 없이는 우리 조카의 수술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초청해서 필요한 모든 치료를 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치료해주실 뿐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조카에게 꿈을 심어줬습니다. 조카가 커서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거리감을 두지 않는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 같은 느낌을 인하대병원의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주셨나봐요 ~~~. 그리고 조카가 손으로 'V'자를 표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뜻대로 안되었어요. 오른손을 올려서 카메라 앞에서 'V'자를 표하는 조카를 볼 때마다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아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조카에게 큰 희망과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몽골에 있는 가족들 모두가 안부 인사를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인하대병원이 다문화, 국제사회의 중심 병원으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엔흐자르갈 올림.

몽골 환아 아디아슈렌(5세)은 헬스조선 및 대한항공과 함께하는 '지구촌 한가족 캠페인'에 참가하여 9월 1차 수술, 10월 2차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고 10월 28일 퇴원하였습니다. 아디아슈렌은 오른손에는 여섯 개 손가락이 있고, 왼쪽 팔도 활처럼 굽은 선천성 기형 환자였지만, 이제는 두 팔을 자유롭게 뻗으며 건강하고 예쁘게 자랄 것입니다.
(사진 왼쪽부터 주치의 이동주 교수, 김미애 담당간호사, 박승림 병원장, 몽골 환아와 아버지)



가을 운동회를 마치고

왕짱인 노(老)바디 팀, 엔돌핀 분비의 위력!

글 · 김순기 교수 | 소아청소년과

天高淸風之節!

우리 모두 인하(仁荷)의 들에서 모였고 경기를 벌였다. 나는 C팀의 조장을 맡게 되었고, 이 길진 인연은 원고청탁까지 받게 되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좋은 경험을 하게 된 것에 만족하고 감사한다.

노래를 부르면 노래 부를 일이 생긴다는 속담이 있다. 우리 C조를 이루는 각 과의 대표자들은 모여서 상의한 결과, 왕짱 C조로 명명하였고, 이미 이 이름대로 말이 씨가 된 것은 아닌지? 즉, 쵸이나 짱이나 같은 1등을 의미하는데, 둘이 합쳤으니 기능성은 곱빼기가 된 것이다.

기왕이면 열심히 하자! 더구나 나는 같은 병동에서 일하는 수간호사님 부탁이니 더욱 협조해야 할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닌가. 결국 평균연령 50세의 노(老)바디 팀이 결성되었다. 머리로 벗어지고 체형 역시 무너져가는 시기에, 약간은 망가진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다. 덕분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댄스를 배우는 기회도 잡게 되었다. 운동회 날, 의원원장님의 축하 가운데,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선동적 연설에도 고무되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싸웠고 목이 터져라 응원하였다. 우리는 각팀의 장기자랑에도 환호하였고, 특별출연한 벨리댄스에도 열광하였다. 엔돌핀 분비 왕짱!

운동을 잘하면 더 좋겠지만, 못해도 좋다. 그게 무슨 대수인가?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과 정력을 들이고 더 많은 운동효과를 보려고 한다. 그렇다면 못하는 것이 그렇게 억울한 것만은 아니리라. 왜냐하면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은 더욱 힘과 기를 쓰고, 따라서 그의 운동량은 더욱 많을 것이며, 이런 점에서 몸은 충분한 운동효과를 본 것이 된 것이다. 여성들은 OB를 잘 내는 골퍼를 더 좋아한다는 말도 있잖은가.

힘든 시절을 이겨내라는 말 가운데, 스트레스를 STRESS로 다스리자는 말이 있다.

Sports, Travel, Recreation, Eating, Smile, Sleeping의 이니셜. 그날 우리는 Sports를 통하여 마음껏 뛰고 놀았다. 짧은 여정이었지만 인하대병원에서 인하대학교 운동장까지 Travel하였고, Recreation을 하면서 놀았다. 잘 먹고 (Eating) 마시고 즐기면서 Smile 하였고, 나중에 집에서 푹 Sleeping 할 수 있었다. 혹자는 S를 다른 의미로 즐겨 사용하기도 한다지만.



가정에서 기념식(ceremony)은 중요하다고 한다. 생일, 기념일, 입학식이나 특별한 날을 축하하는 모임을 갖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족지시험에 80점 이상 맞았다든지 월급날에 외식을 하거나 영화 관람을 하는 등, 기념 세레모니를 거행하는 식이다. 그러면 가족 화목에도 좋고 자녀 교육에도 좋다고 한다. 우리집은 주요 세레모니가 감자탕 먹는 것이다. 막내 녀석의 주장을 따른 것인데, 이녀석, 똑같은 돈으로 맛있고 가장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그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병원이라는 조직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축제가 진정한 축일로 되려면 보다 많은 사람이 참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지금 돌이켜보니 안타깝고 아쉬운 장면도 있었지만, 모두들 열심히 참석하고 한때를 만끽한 운동회였다.

이제 또 한 번의 기회가 오고 있다. 이른바, 송년회! 이때 우리들 모두 열심히 참석하여 걸판지게 놀아보자. 술의 힘을 빌리기보다는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으로.

이때 1~3분 정도의 야자타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이번 송년회에 시작해볼까? 가장 윗사람부터 야자타임을 주어보자.

다시 한 번 열심히 노력해준 C팀, 그리고 우리의 희생양이 되어준 A, B, D 팀에도 감사한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세요, 세요, 세요.....

▼사진 가운데가 김순기 교수



‘덤’이라는 인정, 인간적인 따뜻함이 그리운 하얀 수증기 속에서 튀밥 줍던 뽕튀기의 추억

유병화 | 원외독자



요즘 아이들에게 ‘보릿고개’라는 말을 하면 “무슨 새콤(새 배꼽) 빠지는 소리를 하시나요?”라는 반문이 들어올 것이다.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 하지만 끼니도 제때 해결하기 어려웠던 시절에도 군것질감은 있었다. 그 가운데 고소한 튀밥과 강냉이는 당시 아이들의 군음식으로 단연 으뜸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낭만적이었다.

뽕튀기는 요즘에도 5일장이 서는 소도읍이나 도시 변두리에서 간혹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당시 시골마을에선 드물지 않은 이벤트(?)였다. 뽕튀기 아저씨가 들르는 날 동네 아이들은 ‘생쥐 고방 드나들듯’ 집을 들락거리며 뽕튀기를 해달라고 어른들을 졸라댔다.

뽕튀기 과정은 언제나 긴장과 스릴이 넘쳤다. 웅기종기 둘러앉은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뽕튀기 아저씨는 찌그러진 강통에 담긴 반 되쯤 되는 쌀을 배불뚝이 쇠틀(뽕튀기틀)에 넣고 쇠마개를 닫는다. 장작으로 지핀 불통을 쌀이 담긴 쇠틀 아래에 들이밀고 쇠틀 손잡이를 빙글빙글 돌리기 시작한다. “뽕이야!” 소리와 함께 쇠틀이 움찔 뒤로 밀려나며 새하얀 수증기와 파묻힌 망태에는 어느새 한말이나 뽕진한 튀밥이 가득했다.

아이들의 눈에는 어찌된 조화인지 한 움큼의 곡식만 넣어도 한 자루의 구수한 강냉이가 튀겨져 나오고, 말린 가래떡 조각을 넣으면 비스켓 크기의 과자로, 누룽지를 넣으면 영지 버섯만한 튀밥으로 만들어지는 게 신기하기만 했다. 하얀 수증기 속을 뛰어다니며 튀밥을 줍는 재미에 시간가는 줄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뽕튀기 기계도 세월 따라 업그레이드를 거듭했다. 장작으로 지피던 불통은 가스버너로 바뀌었고, 시간을 재며 손으로 돌리던 쇠틀 손잡이는 모터가 대신 돌린다.

고향의 시골벽적했던 옛 장터도 지금은 낡은 몇몇 건물들이 주인 없이 우두커니 서있을 뿐이다. 뽕튀기 아저씨의 보금자리였던 5일장은 하나 둘씩 사라져 대형 마트에 자리를 내줬고 상설시장마저 점점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형 마트가 더 싸다고 생각하는데 싸게만 느껴지는 묽음 판매도 그다지 싼 건 아닌 듯 하다. 재래시장에는 가격 정찰제인 마트에서 찾을 수 없는 ‘덤’이라는 인정이 있고 삶의 질감이 묻어나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배어 나오지 않았다.

오늘 문득 뽕튀기 아저씨의 ‘뽕이요!’ 소리가 그리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생활의 편리함이나 효율성만 지나치게 따지면서 오히려 이웃간의 인간적인 정을 느끼며 공감할 수 있는 기회들마저 스스로 포기하고 사는 건 아닌지 하는 아쉬움 때문이다. 밤이 깊어가는 오늘, 그래서 더욱 그때가 그리워진다.

working mom

직장인 아줌마의 애환

우리아이 아침 인사는 “엄마, 몇 시에 와?”

문성희 | 원외독자



“엄마, 오늘은 몇 시에 와?”

드레스 룸에서 스타킹을 꺼내 신는 등 마는 등, 핸드백 찾아 들쳐 메고 화장대 위에 올려져 있던 자동차 열쇠를 들고
할레벌떡 나서는 내게 7살짜리 막내 아들이 ‘애절하게’ 던진 한마디가 귓전을 때린다.

7살인 우리집 셋째 아이는 유난히 엄마인 나를 찾는다. 그럴 나이가 지났건만 막내라는 이유만으로 좀 챙겨주었더니
어리광도 많고 샘도 많다.

한창 엄마의 사랑을 받고 응석을 부릴 나이에 엄마가 나가 있으니 얼마나 외롭고 심심하랴. 하물며 누님들은 동생 건
사에 더더욱 신경도 안 쓰니 출근하는 엄마의 뒷모습에 대고 “몇 시에 와?”가 인사가 돼버린 것이다.

내가 늘그막 삼세번에 건진 막내 아들 이름은 친구이다. 이 녀석의 아침 인사말에는 “혹시 오늘은 엄마가 좀 일찍 퇴
근해서 유치원으로 나를 데리러 오지나 않을까”하는 소박한 기대가 숨어있다. 막내 아들의 이런 기대를 늘 깨뜨리는
엄마의 마음은 사실 편지 않다. 그 이유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결코 지켜지지 않는 퇴근시간 때문이다.

아이가 작년에 어린이 집에 다닐 때 재롱잔치가 열렸던 적이 있었다. 그때 재롱잔치를 앞두고 아이는 집에서 며칠씩
연습하고 준비하며 한껏 기대를 부풀렸다. 하지만 재롱잔치에는 결국 남편이 가고야 말았다. 우리 아저씨로 말하자면
애들 로봇 하나도 제대로 조립해줄 줄 모를 정도로 육아에 뺑점인 아빠였으니 그날 아이의 실망이란 거의 ‘말해 무엇
하리요’ 수준이었다. 모든 직장인 주부들의 공통적인 애환이겠지만 회사일, 가사일 완벽하게 소화하기란 쉽지 않다. 어
쩌다 집안 일로 회사일 좀 약간 소홀히 했다는 티라도 나면 순식간에 ‘회사는 부업으로 다니는 아줌마’로 낙인 찍혀버
리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아줌마들은 결코 비켜 갈수 없는 비애를 느끼고야 만다.

그날도 서둘러 퇴근해서 미안한 마음에 아이를 와락 끌어안으며 “친구야, 재롱잔치 재미있었어?” 했더니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묻는다.

“엄마, 내가 만든 강통 로봇 멋지지?”

에구구.... 귀엽고 천진하고 예쁜 것. 내가 더 잘해줘야지, 우리 아들.

남편과 아이를 뒤처다꺼리에 시댁, 친정의 갖은 일상사까지 챙기며 직장에 다니는 대한민국 아줌마 직장인 여러분들,
힘내세요. 엄마 믿고 씩씩하게 곳곳이 잘 자라주는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Etiquette” “Etiquette”



동작 그만! 성희롱 예방 직장생활 에티켓

“여자같이 생겨서 힘 쓸 수 있겠어?”도 성희롱

김영희 교수 | 서강대 양성평등성상담당실 상담

많은 사람들은 ‘성희롱’ 하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위험한 언행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의 상황에 놓여 불편감을 감추지 못하는 가족이나 직장동료를 접하게 되는 경우도 마주하게 된다.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알아보자.

성희롱이 국내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1993년에 발생한 서울대 교수 성희롱 소송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3심 대법원까지 가게 된 긴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일상적 행위로 치부되었던 성적 언행들이 불법행위로 판정되었고, 성희롱 행위자(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했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기관장, 상사, 동료, 부하직원(행위자)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직장 내 구성원(피해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해당된다. 여기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느꼈을 감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성적언동이 행위자의 입장에서 친밀감을 나타내려는 의도에서 표현된 것이라 하여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고 그러한 행동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수도용하기에 어려운 것이라면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다음은 성희롱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성적 인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등의 발언을 하여 직원이 성적 굴욕감을 느껴 근무의욕이 저하되는 경우, 개인의 성생활과 관계되는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경우, 음란한 사진·그림 등을 보내어 직원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껴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하는 경우, 상사나 동료의 직원의 특정 신체부위(가슴, 허리 등)를 만져 직원이 이에 저항하자 불이익한 부서로 배치 전환하는 경우, 직장내에서 상사의 성적인 관계를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원이 해고 등 불이익 받는 경우, 회식자리에서 상사나 동료가 술 따르기, 성적 농담, 춤추기, 노래하기 등을 요구하며 포옹하려 하여 이를 문제제기하자 비난하거나 직장 내에서 따돌리는 경우 등이다. 또한 부적절한 장소(예: 퇴폐적인 쇼를 하는 술집)에서의 회식으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낀 경우나 은행의 한 남직원을 두고 여직원들이 “여자같이 생겨서 힘을 쓸 수 있겠느냐”는 등 성적인 암시가 담긴 불쾌한 농담을 자주하여 남직원이 피해를 호소한 경우, 남직원들끼리 동료 여직원을 놓고 “음료에 약을 타서 어떻게 해보지 그랬느냐”며 쑥덕거린 성적발언을 여직원이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경우도 지속적인 업무관계가 이루어지는 직장에서는 직접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보아 성희롱 결정이 내려졌다.

위의 사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며,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이나 행동이 직장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 지에 대해 각자 한번 생각해보자. 자신의 언행이 과연 불평등한 성의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지, 또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존중하고 있는 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성별고정관념을 넘어서 양성평등적 감수성과 젠더파트너십을 갖고 시너지를 발휘하고자 하는데, 우리의 성문화는 아직 그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여 성희롱 근절의 숙제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다. 성희롱은 여성과 남성에게 대한 성 고정관념, 성차별 의식, 성에 대한 왜곡된 통념, 남녀의 이중적 성규범, 서로 다른 성의식과 젠더 감수성, 사람과 사람사이에서의 힘의 위계관계가 개입되어 비롯되는 결과이다.

성희롱 피해자, 가해자가 된다면 이렇게 하라!

● 만일 성희롱 피해를 입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행위자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행동이 성희롱으로 판단됨을 직면시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다. 또한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행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이후 해결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증거 자료를 남겨둔다.

● 혹시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희롱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되므로 자신의 의도가 어떠하였든 상대방이 자신의 성적 언행에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즉각 사과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사과는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상처와 감정을 공감하고, 자신의 성적 언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성하며 사과하여야 한다. 또한 성희롱의 문제로 직장내 조사를 받고 있다면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한다.

● 과연 우리는 성희롱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상대가 요구하거나 바라지 않는 성적 언동을 하지 않도록 평소에 주위하며 특히 성차별적인 농담이나 비하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하겠다. 상사로서 부하직원을 칭찬하거나 격려할 때 쓰다듬거나 가볍게 치는 행위도 부하직원의 동의를 받은 후 행동해야 한다. 일단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건발생 및 사건당사자에 대한 비밀 유지와 더불어 행위자가 그런 언행을 계속하지 않도록 중지시켜야 하며, 직장내 고충처리부서의 사실관계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조치이후 가해자나 부서원들이 보복하지 않도록 한다.

미국에서는 직장내에서 해서는 안 될 말, 즉 분쟁이나 성차별을 유발하는 말들을 ‘fighting word’로 지정하여 제한하는 회사들이 있다. 우리병원도 한번 fighting word의 목록을 만들어 보급 하지 않은가.....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면서 건강한 젠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을 높여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기를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패치제의 사용

착 붙이는 약 패치제 효과 꼭 나게 하려면?

Q: 패치제는 어디에 붙여야 하나요?

A: 패치란 약물을 지지체에 담아 피부에 직접 부착하여 약물이 일정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몸 속의 필요한 부위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든 제제입니다. 흔히 패치는 환부에만 붙이는 것으로 생각하나 제품마다 권고되는 부착부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품 설명서를 읽어보시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nitroglycerin(엔지덤패치)는 가슴부위, 상완부 내측에 부착하시고 estrogen(클리마라패치)은 등하부, 복부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때 깨끗하고 털이 없는 부위에 부착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해당 부위의 체모를 잘라내야 합니다. 또한 많이 움직이는 곳은 혈류량이 불규칙하여 흡수량이 일정하지 않고, 패치제가 떨어져 나갈 위험성이 많으며 피부자극, 국소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착 위치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Q: 패치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A: Transdermal therapeutic system(TTS)는 피부와 TTS제제의 방출조절막 기능으로 피부를 통하여 일정한 속도로 약물이 흡수되도록 고안된 제제입니다. 가위로 잘라내거나 보관 중 절단, 분할, 손상된 경우 방출조절기능의 파괴로 과량 또는 저용량이 흡수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합니다. 따라서 호쿠날린 패치, 듀로제식 패치와 같은 TTS제제는 잘라서 사용하면 안되고 케토톱 플라스터의 경우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Q: 듀로제식 패치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A: 이 약은 마약성 진통제로 피부를 통해 3일간 일정한 속도로 약물이 흡수되므로 만성 통증에 사용됩니다. 이 약은 뒷면의 비닐을 떼내고 가슴이나 팔 부위 중 자극이나 광선조사를 받지 않는 피부에 붙인 후 완전히 부착되도록 약30초간 손바닥으로 단단히 눌러줍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손이 닿지 않는 등의 윗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매를 3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습관성이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약을 부착한 상태로 수영이나 샤워를 할 수 있지만 부착 부위를 직접적인 외부의 열(전기담요, 발열패드, 강한 일광욕, 사우나, 온천탕)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운전, 기계 조작 등 잠재적으로 위험한 작업은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 합니다

※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3,3327 | 야간 032) 890-3315



연말 술 모임 후에도 조심해야 할 저체온증 추운 계절 야외활동, 방한 장비 챙기세요!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하는 11월과, 스키와 같은 겨울 스포츠 시즌이 시작되고 연말 술모임이 잦아지는 12월에 발생할 수 있는 저체온증에 대하여 알아보시다.

김지혜 전임의 | 응급의학과

저체온증이란 무엇인가요?

저체온증이란 체온이 정상보다 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저온의 환경에 노출되면 신체는 열을 빼앗기게 됩니다. 보통 추위를 느끼면 사람들은 옷을 덧입거나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는 등의 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행동 외에도 신체에서는 물질 대사나 몸을 떨기(오한) 등을 통해 열을 발생시키는 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술이 많이 취하거나 의식을 저하 시키는 약물을 복용하여 의식이 없거나, 야외 활동을 하는 상황 등으로 의식적인 보온 행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신체의 반응이 열손실을 따라갈 수 없을 때 저체온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개 저체온증은 심한 정도에 따라 32~35℃의 경도 저체온증, 30~32℃의 중등도 저체온증, 30℃ 이하의 중증 저체온증으로 나눕니다. 중등도 저체온증부터는 열을 발생시키는 오한과 같은 반응이 없어지고 체온이 더 내려가 중증 저체온증으로 가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다가 심실빈맥과 같은 위험한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고 결국엔 심장이 멎어버려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증상과 응급처치는 무엇인가요?

추운 환경에서 오래 있는 사람이 몸을 심하게 떨고 피부가 차갑고 창백해지다가 멍해지며 판단이 흐려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저체온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보이다가 의식이 점점 떨어지고 호흡과 맥박이 느려지면 심각한 저체온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할 것은 대개 추운 날씨의 야외에서 발생하지만 노인, 유아, 환자 등과 같이 활동이 적고 신체가 약한 사람에서는 실내에서도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추위를 막아주고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이나 담요를 덧입혀주고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따뜻한 물 등을 먹여주는데 이 때 술은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열손실을 더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주어서는 안됩니다. 심한 저체온증으로 환자가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입으로 아무것도 먹여서는 안되며 환자에게 가온을 위한 처치를 하되 환자의 심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여서 조그만 움직임도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구급대원이 오거나 병원에 올 때까지 환자를 불필요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주 경한 저체온증 외에는 일단 병원에 와서, 가온 치료를 받는 것 외에도 저체온증의 합병증으로 생길 수 있는 횡문근 용해증이나 동창, 동상 등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심한 저체온증으로 인하여 심장이 멎은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병원에 와서 적극적인 가온 치료와 함께 전문적인 심폐 소생술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겠지요?

추운 계절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모자, 장갑, 목도리, 양말, 적절한 의복과 신발을 갖추어 입어야 하겠고 연말 잦은 술모임에 본인이나 동료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취하여 추운 곳에서 쓰러져 잠이 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이나 유아, 환자가 있는 집에서는 실내 온도가 너무 내려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포비아 (Financial Phobia)

불안한 시장에서의 펀드투자 전략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증시가 흔들거리면서 투자자들이 재무적인 문제에 대해 심리적·육체적 고통을 느끼는 이른바 '파이낸셜 포비아(Financial Phobia)'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포비아란 개인들이 재무 처리에 있어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는 현상인데요,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고통스런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장에서 펀드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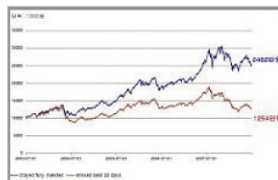
➡ ➡ 올들어 국내 주식형 펀드와 해외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거의 원금에 가까운 마이너스 손실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 큰 폭으로 상승한 금펀드 이외에 대부분의 펀드가 (-) 수익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외펀드의 상당수가 브릭스 지역에 투자되고 있는데 이들 펀드들의 하락폭도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펀드의 경우 60%이상의 손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펀드런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만 오히려 국내펀드로의 자금유입

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해외펀드는 감소추세에 있고, MMF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불안한 시장상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은 국내펀드에 대한 선호와 투자대기자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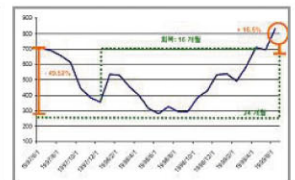
사실 막연히 다들 장기투자하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투자자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밖에 없는 조연입니다. 과거의 조정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 ➡ 과거 어떤 하락장도 16개월 이상 지나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최근 수십년간 우리시장에서 6개월 수익률이 최악이었던 시기는 바로 IMF외환위기 때였습니다. 그 당시 97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동안 코스피는 -49.52%를 기록했습니다. 전고점에 투자한 투자자가 최악의 시점부터 +수익율로 회복되는데 약 16개월이 소요되었구 24개월 뒤에는 약 18.5%의 수익률을 달성하였습니다.



↑ 최근 5년간 KOSPI 투자수익 흐름
*출처 : FIL LIMITED, 2008년 7월기준



↑ IMF전후 KOSPI
*출처 : 블룸버그

조기에 이익실현을 못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물론 잔파도를 잘타서 이익실현과 재투자를 잘할 수 있었다면 더할 나위 없었을 테지만 선부는 시장예측은 절망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2003년 7월 1천만 원을 코스피에 투자를 했다면 5년뒤 약 2482만 원으로 불어났을 겁니다. 만약 이 기간중 주가가 가장 높ی 상승했던 20일 동안 투자를 하지 못했다면 투자금은 1254만 원으로 약 1228만 원의 수익금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

과 공포가 큰 상황일수록 '분산 투자, 장기 투자'라는 투자의 '정식'을 지켜야 손실을 최소화하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안한 장일수록 환매도 투자도 잠시 보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마음을 조리시는 분들은 곧 돈이 필요하신 분들일 텐데요. 해지 시기를 못 잡아 고민하고 계실 분들께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 시장이 반등할 때마다 분할해지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특히 지난주 미국시장의 영향으로 이번 주주 주식시장은 좋은 출발을 보일 걸로 기대가 되는 만큼 1/3 또는 1/2을 분할해지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손익을 다투는 급전이 필요할 땐 펀드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는 7%대 정도 금리로 주식형펀드의 경우 평가금액의 50%, 혼합형펀드는 60%, 채권형펀드는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환매시 주가가 반영되는 날짜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통상 국내펀드의 경우 당일 주가가 해외펀드의 경우 2~3일뒤 주가가 반영됩니다.예외적으로 몇몇 펀드는 6~7일뒤 주가가 반영되기도 하고 뮤추얼 펀드의 경우는 당일 주가로 해지가 됩니다.

환매대금이 입금되는 날짜도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필요한 날 해지신청을 한다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국내펀드의 경우 3시 이전에 신청하면 3일 뒤에 이후에 신청하면 4일 뒤에 자금이 나오고 해외펀드의 경우 신청한 시간제한 없이 7~10일 뒤에 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모 중국펀드의 경우 매달 25일에만 환매대금이 지급되는 특이한 형태도 있습니다.

특히 적립식 펀드의 경우 만기전 환매신청시 납입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건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선 수익의 70%를 환매수수료로 징구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적극적인 투자자들도 계실 텐데요. 장기투자나 추가투자가 가능한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하락장에서 투자의 몇가지 원칙들

- ▶ 투자 초기의 초심을 기억하라(장기투자, 분산투자)
- ▶ 적당한 무관심이 좋은 투자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ELS, P펀드 등 안전하다는 펀드부터 점검하라
- ▶ 이 기회에 편중된 포트폴리오는 재조정하라
- ▶ 적립식펀드는 더욱 적극적으로 납입하라

➡ ➡ 1. 투자 초기의 초심을 기억하고 지켜나가기 권유드립니다. 어떤 하락장도 회복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2~3년 정

도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길 권유드립니다.

2. 지나친 관심이 좋지 못한 선택을 낳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시장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다보면 심리적인 패닉상태에 빠져 큰 손실을 보고 해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관적인 하한선을 설정했다가 그 선이 붕괴되면 힘겨워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장기투자가 가능하다면 펀드의 하락폭보다는 회복가능 기간에 관심을 가지실 권유드립니다.

3.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펀드들부터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특히 최근 리먼브라더스가 발행한 ELS에 투자된 펀드가 엄청난 손실을 보게되었듯이 ELS나 ELF투자자라면 발행 금융기관의 안전성과 현재의 가격이 손실구간에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높은 수익과 안전성을 보장해줄 걸로 기대했던 금융공학펀드 가입자들도 본인의 펀드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4. 하락장일수록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부진 섹터펀드에 투자하시면서 오랫동안 속앓이를 하고 계시거나 중국펀드 등 특정지역에 투자금의 50%이상을 투자하고 계신다면 분할 해지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편중성을 개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5. 적립식펀드는 더욱 적극적으로 납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하락장이 길어지면서 적립식펀드 납입을 중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속적으로 납입하시면 손익분기점을 끌어내릴 수 있어서 남들보다 이른 시기에 손실이 만회될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단순 정액분할투자를 지양하고 납입금액을 늘려투자한다면 손실회복지수대를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목돈을 가지고 투자기회를 엿보는 투자자들의 경우도 지나친 바락락신을 가지고 성급하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3~4회 투자금액을 일정주기나 일정지수대 아래에서 분할투자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최근에 펀드를 손해보고 환매한 후 특판정기예금으로 갈아타시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 투자의 안정성은 높아지겠지만 큰 폭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장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20% 손실을 감내하고 펀드를 환매하였다면 세후 5% 정기예금에 투자하여 4년이 지나야 원금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변화가 바람직한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문의전화 : 인하대병원 하나은행 차장 한충현(032-889-1111)

▶자료제공 : 하나은행 골드클럽 압구정지점 PB / 팀장 김영훈



호텔 같은 병원으로 완벽한 고객 서비스 지향하며 사람 마음을 열어 선택되고, 행복을 주는 병원으로

현대유비스병원_ 이성호 원장

허리 펴고 걸음 잘 걷는 편안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모토로 개원한 현대유비스병원 이성호 원장을 만났다. 아직 성공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겸손한 그에게서 조용하지만 강한 의사로서의 열정이, 부드러우면서 예리한 경영 마인드가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3천여 명의 규모에 14명의 의료진과 200여 명의 직원 그리고 245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유비스병원은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 그래서 또 최근 고객중심 마인드로 인사 잘 하기, 휠체어 밀어주기, 안내하기 등 6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아주 작고 소소한 것이라 당연하지만 그 작은 것이 소홀하면 서운한 것이라 기본부터 지키려는 저희들의 마음이지요.”

행복을 주는 병원, 호텔 같은 병원으로 완벽한 감동을 주고 싶은 이 원장의 말이다. 그래서 인테리어 방식도 호텔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준다.

현장을 좋아했던 이 원장의 개원 결심은 좀 빠른 편이었다. 현대유비스의 출발은 1994년 이 원장 혼자 운영하던 제일정형외과이다.

현장 경험이 많은 이 원장은 자신의 의료소신을 위해 돈이 모이면 땅을 샀고 병원을 짓기 시작했단다. 땅이 없으면 병원이 없고,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그의 진료에 대한 애착은 오늘의 현대유비스를 있게 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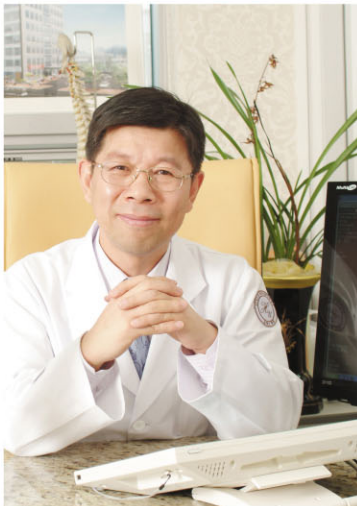
현대유비스는 차별화된 진료 시스템을 갖고 있다. 수술을 잘 하는 병원이지만 하지 않을 수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한다. 전문화된 재활치료가 불가능할 때에만 수술을 권한다. 수술은 핵심이 되는 포커스 치료는 가능하지만 뼈는 뼈 이외에도 근육, 근육 등의 이상에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복합적, 전문적 치료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인하대병원을 바라보는 이 원장은 남다르다.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자적 입장과 의사로서의 시각이 있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인하대병원과는 상부상조의 협력병원이라는 게 이 원장의 기본 생각이고 병실 순환 차원에서도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고 어려운 케이스를 스터디 할 수 있는 동반자 같은 큰 언덕이 가까이 있어 든든한 마음이라고 전한다.

이 원장은 먼 훗날, '유비스'라는 브랜드가 어느 지역에서든 볼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남았으면 하는 조심스런 바람을 이야기 한다.

외과의(surgeon)가 좋고, 의사라는 직업이 갖는 보람은 최고라는 말하는 이 원장, 그는 다시 태어나도 역시 의사의 길을 걸으리라 말한다. 분명, 그에게 남은 날도 지금의 뜨겁고 겸손한 삶으로 현대유비스를 이끌고 있으리라.

글·이정희 | 자유기고가



성체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 백혈병 극복 전기 마련

대한항공 계열사인 호미오세라피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이식편대숙주질환(GVHD)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1상, 2상 시험계획에 대해 식약청으로부터 승인을 취득했다.

이 치료제는 김철수, 이문희, 송순욱 교수팀이 실시한 2차례의 응급임상시험 (2007년 1월, 2008년 7월)에서 GVHD 증세로 인해 사망이 임박한 환자가 두 차례의 투약 후 3~4주 만에 퇴원하는 등 탁월한 효과를 보인 바 있다.

이는 송순욱 교수가 개발해 특허를 받은 '층 분리를 이용한 줄기세포 추출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세포가 섞여 치료제 효과가 불안정했던 과거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호미오세라피는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을 위해 대한항공이 자본을 출자하고 인하대병원이 연구개발과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난 8월 설립된 회사이다.



인하대병원, 몽골 국립 제 1병원, 제 2병원과 진료협약체결 ●

인하대병원은 몽골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제2국립병원(병원장 바야스갈란)과 10월 6일, 국립 제1병원(병원장 소닌)과 10월 27일 인하대병원에서 진료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동북아 메디포트를 지향하고 있는 인하대병원은, 지난 7월 중국 청도 인민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몽골 제2국립병원과 진료협력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향후 몽골 국립 제3병원, 모자병원과도 협약 체결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몽골 제1, 2병원과 상호 환자진료 및 최신 의학정보 교류를 통해 긴밀한 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의료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인하대병원은 몽골 의료발전을 위한 몽골의사 연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5명의 몽골의사가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였다. 이들은 한국의 선진 의료에 대한 홍보대사 역할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몽골 현지 환자가 인하대병원을 찾아와 치료를 받는 몽골인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동북아 메디포트를 지향하고 있는 인하대병원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 앞줄 좌측 2번째부터
몽골대사, 몽골병원장, 이두익 의원원장,
박승림 병원장, 손병관 의대학장



▲ 앞줄 왼쪽부터
박승림 병원장, 소닌 몽골국립제1병원장,
이두익 의원원장, 손병관 의대학장

건강 문화 최고경영자과정 입과자 주치의 및 주치간호사 결연식 개최 ●

인하대병원(병원장 박승림)이 10월 15일 라마다 송도 호텔에서 인하대학교 건강 문화 최고 경영자 과정에 입과한 CEO에 대한 주치의 및 주치간호사 결연식을 가졌다.

지난 9월 17일 5개월 과정으로 입과한 40여명의 CEO는 인하대병원 순환기내과 이우형 교수 등 각 임상과 교수 11명과 김순봉 책임간호사 등 11명의 전문간호사와 1:1 주치의 및 주치간호사 결연식을 맺었다.

주치의 및 주치간호사 제도는 1:1방식의 평생 맞춤 의료자문 및 설계를 해주는 제도로 주치의는 고객의 모든 건강 및 질병과 관련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주치간호사는 고객의 기본적인 건강 관리와 상담 등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제도로써 인하대병원에서는 주치의 제도를 발전시켜 특성화할 계획이다.



1004day 간호사 봉사활동 ●●

인하대병원 간호부는 10월 2일 간호사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1004day 행사를 가졌다.

본 행사는 2005년부터 본원 간호사들의 봉사 및 병원 홍보를 위한 활동으로 올 2008년에는 인하 나이팅게일 수상자 7인과 20여명의 간호사가 참여하였다.

활동 내용으로는 600여명의 내원객 및 외래객들에게 혈압, 혈당 측정 및 건강 상담을 하였고, 감염관리의 기본인 '손 씻기'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직접 손 씻기를 체험현장을 마련하였다. 소아를 대상으로 한 풍선장식 및 face Painting은 행사 분위기를 한 층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었고, 응급처치의 핵심인 심폐소생술 강의 및 실습을 통해 응급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전달하였다. 또한 택시 승강장에서도 혈압, 혈당 측정 및 무료 음료 서비스를 하였다.



인하대병원 박승림 병원장,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감사패 전달 ●●●

인하대병원 박승림 병원장이 11월 12일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이석화)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인하대병원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간 지정병원 협약을 지난 '07년 12월에 체결한 이후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외국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출장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400여명의 보호외국인을 진료하였다. 이번 감사패는 보호외국인의 무료진료로 외국인의 인권보호, 안전보호 및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받았다. 인하대병원 사회봉사단은 국내 낙도지역, 농촌지역 등 의료수혜 사각지역 및 몽골, 스리랑카, 미얀마 등 해외 낙후 의료국가를 방문하여 활발한 의료봉사 활동을 펼



치고 있다. 박승림 병원장은 “인하대병원에는 국내외 의료 손길이 필요로 하는 불우한 환자를 위해 의료봉사 활동을 계속 펼쳐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지원으로 인하대병원에서는 다문화 가정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시집온 외국인 신부의 자국에 있는 가족 중 중병에 걸려 수술 등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치료해 주는 행사도 하고 있다.

미군 121병원 관계자 MOU 체결에 따른 사전방문 ●

11월 3일 미군 121병원 관계자가 본원을 방문하였다.

미군 121병원 관계자는 본원과 MOU체결에 따른 사전 협의 차 본원을 방문하여, 사이버나이프센터, PET센터, 건강증진센터, 특실병동 등을 견학하였고 본원시설에 대하여 만족감을 표시하고 돌아갔다.



‘제2회 송도동 해돋이축제’ 의료지원 ●●

〈제2회 송도동 해돋이축제〉는 송도동의 주민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기 위한 화합의 장으로 18일 오후 1시부터 식전행사, 오후 5시부터 개회식과 축하공연, 장기자랑이 펼쳐졌다. 인하대병원 사회봉사단은 의료지원을 통해 행사에 참가한 송도동 1만여 명 주민과 더욱 친근한 병원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



인천국제공항 스카이 페스티벌 의료지원

인천광역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08 인천공항 스카이 페스티벌〉이 10월 17일(금)부터 19일(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잔디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인하대병원 사회봉사단은 동북아 메디포트를 실현하기 위해 매년 스카이 페스티벌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며, 인천공항공사와 유대강화는 물론 영종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실천했다.

안과 오중협교수, 항공의학회 회장선임 ●●●

10월 31일 인하대병원 안과 오중협 교수가 2년간의 임기로 한국항공우주의학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오중협 교수는 항공기 승무원 및 항공우주산업 종사자의 건강보호와 우주인 선발, 기장신체검사, 공군항공의학 등 우리나라 항공우주의학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인하대병원-인천시장 표창장,

김종래 행정관리실장-행정안전부장관 표창장 수상 ●●●●

11월 7일 제 46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김종래 행정관리실장이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특히 소방행정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행정 안전부장관 표창을 그리고 인하대병원은 인천시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원내 기도실 개설 운영 ●

11월 3일부터 환자 및 보호자와 의료진과의 유기적 협조와 조화를 이루며, 심리 사회적 치료 지원을 위하여 원내에 기도실을 개설 운영한다. 장소는 3층 강당 맞은편이며, 운영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이다. 천주교·기독교실, 불교실로 구분되어 있다. [문의 : 총무팀 (032)890-2701]



영문홈페이지 및 국문 메인화면 개편 ●●

10월 17일 영문홈페이지를 오픈하였다. 해외인지도 제고 및 본원에 대한 정보제공과 동북아 메디포트를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영문홈페이지를 제작하였다. 병원이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하던 영문페이지를 병원소개, 진료과/의료진 소개, 외국인 진료안내, 인하대병원의 특징점 등을 메뉴로 한 별도 사이트로 구축하였다.

국문페이지는 메인화면 콘텐츠 재구성 및 비주얼을 강조한 플래시 영역으로 바꾸고, 풀다운 형식의 네비게이션으로 변경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파랑새 소식

● 파랑새는 인하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이름입니다

▶홈페이지 www.inha.com>여성암센터 ▶카페 [cafe.daum.net / inhabluebird](http://cafe.daum.net/inhabluebird) ▶문의 여성암센터 ☎ 890-2560

여성암 센터 교육 및 유방암 환우회 파랑새 행사 공지

1) 유방암 공개강좌 개최

10월 28일 개최한 정기 유방암 공개강좌는 '한국인 유방암의 유형', '유방암 재발 방지'를 주제로 외과 조영업 교수의 강의와 자가검진에 대하여 박정미 교수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2) 2008년 아모레 퍼시픽 주관 유방암 환자의 미용에 관한 강좌 개최

- * 일 시: 12월 3일 (수요일) 오후1시 30분~ 오후5시
- * 장 소: 3층 강당

* 참가 인원 : 선착순 50명 환우

* 행사 목적 : 암 치료과정에서 외모의 변화로 상실감을 경험하는 여성들에게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도록 도와 상실감을 극복하고 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캠페인

* 내 용 : 스킨케어, 맛사지법 소개, 메이크업 실습, 간단 코디법 등

3) 여성암센터 송년회

* 일 시: 12월 12일 (금) 오후 6시~

* 장 소: 주안귀빈웨딩홀

● 각 팀장에게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동정

임용(서비스강사)

간호부	강혜원
고객만족팀	이우진
병동간호팀	김순봉, 김재은, 김진숙
	이현숙, 전창순, 한선영
영상의학과	김현길
외래간호팀	조화연
진단검사의학과	김권철
진료지원팀	신소영
특수간호팀	권은경, 김미란, 이경미

협력사

원무보험팀	이윤주 (케이텍맨파워)
-------	--------------

전근

순화기내과	원종실
-------	-----

수습채용

특수간호팀	이지혜, 김유영, 황소희
병동간호팀	노수경

친절직원

10월 외래간호팀(소아과외래)	이혜진
11월 병동간호팀(서15병동)	서민영간호사

자원봉사자 모집

인하대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봉사해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 자 격

- ① 만 60세 미만으로 주 1회(3시간) 최소한 6개월 이상 활동 가능하신 분
- ② 각종 교육과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
- ③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신 분

- ③ 행사 참여 : 야유회, 송년회, 간담회

- ④ 자원봉사상해보험가입

- ⑤ 의료비 감면 (6개월 이상 봉사자)

- ⑥ 자녀(중고생) 인하대병원 학생자원봉사활동 참여 우선 자격 부여

2. 봉사활동시간

- 오전 : 9시 ~ 12시 / 오후 : 1시 ~ 4시

3. 봉사자에 대한 예우

- ① 3시간 이상 봉사 활동시 식권 지원
- ② 봉사당일 무료주차



봉사활동부서별 내용

활동부서	대 상	활동내용
소아청소년과	입원, 외래환아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동화구연
외래안내	내원객	진료상담, 진료실,검사실 위치안내, 동행안내
도서대여	입원환자,보호자	무료도서대여, 반납, 정리
이미용 봉사	입원환자	이미용(병동방문)
호스피스	입원환자	세발, 간병, 목욕, 말벗
진료지원부서 (중앙공급실/수술실/세탁실)		진료재료 공급, 거즈나 붕대접기, 의료소모품 정리 환자가운 등 세탁물 정리

● 문의 : 지하 2층 자원봉사실 담당 - 신소영 ☎032-890-2873



사회복지 소식

어려움의 언덕을 함께 넘는 사랑의 나눔지기

● _ 언뜻 보기에는 또래의 여학생들과 별 다른 차이 없는 16살, 여고 1학년인 아람이(가명)는 남모를 고민과 아픔이 있었다. 선천적으로 한쪽 엉덩이에 이상 조직이 생겨 의사에 오래 앉아 있기도 불편하고 외형상에도 문제가 있어 보였지만 제대로 된 진료 한 번 받아 보지 못했다. 시골에서 자그마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아버지 형편에 병원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서이다. 외국인선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지인 목사님의 소개로 본원의 사회복지 상담을 받게 된 아람이는 민간복지재단과 본원의 인하 '나눔지기' 기금(불우한 환자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돌봐준다는 의미로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여 조성한 후원금)후원을 받아 수술 전 정밀검사비도 마련하고 무사히 수술도 받게 되었다. 이젠 하루 종일 앉아도 고통 없는 건강해진 엉덩이(?) 덕에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 _ 중국 국적의 조선족 이춘배(가명, 남56세)씨는 체류 기간이 만기된 지 수년 된 불법 체류자이지만 비강내종양이란 암진단을 받아 중국에도 돌아가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한때 인정받는 용접기술을 가져 돈도 제법 벌었지만 커져가는 종양으로 일은 커녕 눈조차 뜨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어서 본원을 방문했다. 치료 방법은 로봇사이버나이프수술, 내국인에게는 건강보험적용이 되지만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액의 치료비가 문제였다. 다행히 외국인 자원단체 등에서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게 되었다.

● _ 슬기(가명, 고3)는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정부 지원과 어머니 혼자 세탁소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돈으로 치료비를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에 사회복지상담실로 문을 두드려 지원을 받게 되었다.

● _ 유방암이 골반뼈까지 전이되어 걸을 수조차 없는 어머니를 정성스레 간병하며, 자신이 군대 갈 때까지 만이라도 살아달라는 초등학교 4학년 수철이(가명)의 가슴 저미는 사연은 모 케이블 방송에 소개되어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포기하려던 치료를 계속 진행하게 되었다.

병원에는 수많은 사연들이 있다. 때로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자녀를 중병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 하는 부모의 사연, 가족 없이 혼자 암과 투병해야 하는 환자, 살림살이 어려운 자식 걱정하느라 치료를 포기하는 노년의 환자 등등...

이들의 아픔 어린 사연에 따뜻한 나눔을 채워 줄 사랑의 나눔지기. 이웃된 우리의 책임과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세계적인 경기 불황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며 어려움의 언덕을 함께 넘을 수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 후원 및 사회복지상담

- 문의 : 의료사회복지사 담당 - 원공주
- 전화 : 032-890-2870(진료지원팀)



Global Inha

외국인 환자의 기초문진 시 머리가 빙글빙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경험을 하였다면, 이번 호에 게재된 기초문진 시 필요한 영어 한 마디로 이제부터는 자신감 있게 외국인 환자와 대화해보시길 바랍니다.



Nurse: What is your major complaint?

Patient: I have pain in the lower abdomen.

Nurse: Have you ever undergone surgery?

Patient: Yes, I did appendicitis surgery two years ago.

Nurse: Okay, and do you have any family member with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or cancer, etc?

Patient: Yes, my father has suffered from heart disease.

Nurse: Are you taking any medicine on a regular basis?

Patient: No, not at all.

Nurse: Let me check your height and weight, please take off your shoes and then step on the scale. After that, I will check your blood pressure.

✧ 이제부터는 외국인 환자의 기초문진을 할 때, 각 진료과별로 다양한 상황에 맞게 응용하여 대화해보세요.
Global 인하대병원에는 Global 인하인이 있습니다.



♣ 원 | 고 | 모 | 집 ♣

원보 인하대병원은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글 재주가 없다고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 주변의 잔잔한 이야기나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적은 글은 읽는 이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펜을 들어보십시오.

■E-mail : inhapr@inha.com

■보낼 곳 : 대외협력홍보실

☎ 032-890-2603

편집위원

김명석

이지현, 김필립 | 대외협력홍보실

유진희 | 간호부

강순자 | 원무보협팀

독 자 엽 서

보 내 는 사 람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08. 07. 09 ~ 2010. 07. 08

인천 우체국
제40050호

받 는 사 람



인하대병원
www.inha.com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7-206
인하대병원 대외협력홍보실
원보편집실 앞

4 0 0 - 7 1 1

퀴즈 퀴즈 제46회

※ 당첨자는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퀴즈 정답과 의견을 독자엽서에 작성하시어, 원내 고객의 소리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원 홈페이지(www.inha.com)를 참고하시고 인터넷으로 응모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당첨된 분들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1 호흡기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천식은 찬바람을 쐬면 어김없이 기침을 하고, 뛰거나 울거나 웃어도 기침을 한다
 ② 천식 조절제를 오랫동안 복용하면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감기에 더 잘 걸린다.
 ③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집먼지 진드기의 배설물, 환절기 감기 등이다.
 ④ 여름철의 고온 다습한 환경은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롭다.
- 2 건선환자들의 일상생활 지침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② 겨울철에 목욕은 평소보다 횟수를 반으로 줄여서 한다.
 ③ 목욕물은 47도 정도의 따뜻한 온도로 한다.
 ④ 때수건 사용은 하지 않는다.
- 3 대한항공 계열사인 호미오세라피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이식편대숙주질환(GVHD)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1상, 2상 시험계획에 대해 식약청으로부터 승인을 취득했다. 이 치료제는 김철수, 이문희, 송순욱 교수팀이 실시한 2차례의 응급임상시험(2007년 1월, 2008년 7월)에서 GVHD 증세로 인해 사망이 임박한 환자가 두 차례의 투약 후 3~4주 만에 퇴원하는 등 탁월한 효과를 보인바 있다.
 이는 송순욱 교수가 개발해 특허를 받은 '총 분리를 이용한 ○○○○ ○○○'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세포가 섞여 치료제 효과가 불안정했던 과거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호미오세라피는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을 위해 대한항공이 자본을 출자하고 인하대병원이 연구개발과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난 8월 설립된 회사이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은?

●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보내시는 분의 연락처

Quiz 정답

1

2

3

♣ 제45회 QUIZ 정답

- ① 4
- ② 3
- ③ 당노비만센터

♣ 당첨을 축하합니다

- 김옥자 인천 남동구 서창동
- 강영숙 인천 부평구 삼산동
- 고영남 인천 남동구 간석2동
- 김건균 기원조정팀
- 박유진 서11병동

인하의료원 발전기금 조성

■ 후원금 사용 용도

- ▶ 세계적 수준의 진료 및 임상의학 연구 지원
- ▶ 인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 참여 방법

- ▶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현금화 가능한 자산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 ▶ 온라인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급여공제 등의 방법으로 일시 혹은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 단체, 법인 명의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납입 방법

- ▶ 자동이체 : 거래은행 신청후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전화 통보 (☎ 032-890-2601)

- ▶ 무통장 입금 : 하나은행 : 748-910002-39804

(예금주)인하대병원

- ▶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 기부약정서 및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www.inha.com) 참조

◎ 총괄 현황 | 2008년 11월 14일 현재

기부자	약정액	납입총액	비고
225명	450,929,950원	312,345,598원	

◎ 기부자 현황 | 2008년 9월 3일 ~ 11월 14일 현재

일 자	성 명	약 정 액	비고
'08. 11. 11	5인초대작가 이동	₩520,000원	김기범 외 4명(완납)

| 건강교실 안내 |

건강교실명	내 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출산준비 부부교실	• 임신, 분만에 대한 지식 및 산모체조와 진통시의 적절한 호흡법 교육 - 참가비 7만원	매주 (토) 오후 2시	3층 회의실	(032)890-2170
항암제를 맞는 환자 및 보호자 교육	• 항암 화학요법이란 무엇인가? • 항암 화학요법의 부작용과 대처방안 •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식사요법	매주 1회 (교육 신청시 안내)	3층 암센터	(032)890-2580
유방암 환자 교육	• 유방암 환자의 식이 •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림파부종 관리 • 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 신청)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 3시 ~ 5시 (11/10, 12/8)	3층 1 세미나실	(032)890-2560

| 무료공개 강좌 |

강좌 일자	강좌 내용	진료과목	담당교수
11월 25일(화) 오후 3시	주부요실금의 진단과 치료	비뇨기과	박원희
12월 30일(화) 오후 3시	중년이후 여성의 건강관리	산부인과	이병익
09년 1월 9일(금) 오후 3시	관절염의 새로운 치료법	류마티스내과	권성렬

● 강의일시 :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오후 15:00 ~ 16:00 ● 장소 : 병원 3층 대강당 ● 문의처 : 교육수련부(☎032-890-2640~2) ● 인터넷 홈페이지(www.inha.com)

| 갤러리 전시안내 |

전시 일정	제목	참여 작가	주최
2008. 11. 1(토) ~ 2008. 11. 29(토)	ARA 회	노희정, 송경숙 외	ARA 회
2008. 12. 1(월) ~ 2008. 12. 31(수)	중구미술협회전		중구미술협회
2009. 1. 2(금) ~ 2008. 1. 31(토)	빛과 향기전	안성진 외	인천남구미술인협회
2009. 2. 2(월) ~ 2008. 2. 28(토)	장애아동 그림전시회		
2009. 3. 2(월) ~ 2008. 3. 31(화)	고진오 화백 전시회		

인하대병원 진료안내

■ 대표전화 (032)890-2114 ■ 외래진료예약 (032)890-2000
 ■ 종합검진센터 (032)890-3331 ■ 종합검진플러스센터 (032)890-3300 ■ 사이버나이프센터 (032)890-3076

• **청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청색)** : 클리닉만 진료

진료과	교수명	선택 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진료과	교수명	선택 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심장내과 (☎2200)	이우형	*	고혈압, 관동맥질환, 고지혈증	월, 금	화	심장혈관센터 (☎2440~1)	혈액종양내과 (☎2219)	김철수	*	종양학, 혈액학, 골수이식학	월, 수	월, 수	천자확인	
	박금수	*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낭질환	화, 목	월			이문희	*	종양학, 혈액학, 골수이식학	수, 목	월		
	권 준	*	관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근증	월, 수	목			이현규	*	종양학, 혈액학, 분자유전학	화	수, 금		
	김대혁	*	해외연수(2008. 8 ~)					김진수	*	종양학, 혈액학, 분자유전학	화, 금	목		
	우성일	*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부전		월, 수, 목, 금			임주환	*	종양학, 혈액학, 분자유전학	목, 금	화		
	최응길	*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부전		금		암센터 (☎2580)	김철수	*	혈액종양, 골수이식	화, 목			
	김수현	*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부전	화, 목				이문희	*	혈액종양, 골수이식	월			
소화기내과 (☎2224)	김영수	*	간질환, 간암클리닉, 위내시경	월, 화, 목, 금		내시경센터 (☎2540~1)	감염내과	정문현	*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월, 목	화		
	신용운	*	소화관질환, 위·대장질환	월, 금	수			이진수	*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수, 금	월		
	이돈형	*	담도, 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화, 목	월		류마티스내과 (☎2219)	박 원	*	관절염, 골다공증, 루프스	화, 수, 목	월		
	김형길	*	소화관질환, 소화관암, 대장질환	수, 금	월			권성렬	*	관절염, 혈관염, 베체트, 레이노	월, 금	화, 수, 목		
	권계숙	*	소화관질환, 변비클리닉	목	월, 수			임미진	*	관절염, 척추염, 통풍	월, 화, 수, 목			
	이진우	*	간질환, 간암클리닉, 위·대장내시경	목, 금	화, 목			김영옥	*	관절염, 척추염, 통풍	금	월, 화, 수		
	정 석	*	담도, 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월, 화	목			일 반				금		
	이정일	*	간질환, 간암클리닉, 위·대장내시경	화, 수	수, 금		알레르기내과	김철우		해외연수(2008. 9 ~)				
	박정엽	*	치료내시경, 소화관질환	수	화, 금									
	박현주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목		내과계일반 외과 (☎2250)	일 반		전체적인 내과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최윤아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화			김경래	*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월, 수	목		
	김철현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신석환	*	소화기외과, 위암	목	월		
	손동욱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홍기천	*	헬리코이식외과	화	목		
	김희구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안승익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목	화		
	최세로운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조영업	*	유방, 내분비외과	(월), (수), (목)			
호흡기내과 (☎2215)	이홍렬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화, 목	월, 금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	(화), (금), (일)	(월), (목)	☐여성암센터 △비만센터	
	곽승민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월, 화, 금	수			이건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수	금		
	류정선	*	호흡기질환, 폐종양, 만성폐질환	월, 금	화, 목			허윤석	*	소화기외과, 위	(화), (수)	금		
	조재화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집중진료의학	수, 목	월, 화			최선근	*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화	금		
								최윤미	*	소아외과	금	월, 수		
당뇨내분비센터 (☎3360)	김용성	*	당뇨병, 비만, 내분비	화, (목), 금	월, 목	☐비만센터 *임상시험센터	흉부외과 (☎2280)	윤민영	*	대장항문질환	금	수		
	남문석	*	당뇨병, 뇌하수체, 내분비	(화), (화), 수, 목, 금				김장용	*	혈관내치료		월, 수		
	홍성빈	*	해외연수(2008. 2 ~)					최소영	*	유방, 내분비외과	월			
	김소현	*	당뇨병, 내분비, 비만	월, 화, 목, 금	수			박정미	*	유방, 내분비외과	수, (금), (일)	금		
	오윤주	*	당뇨병, 내분비, 갑상선	월	화, (목*), 금			강규철	*	소화기외과, 위암	수, (금), (일)	금		
비만 내분비내과 센터 (☎3360) 외과	김용성	*	당뇨비만(성인)	목		*IMT검사	신경외과 (☎2370)	김광호	*	폐질환, 식도질환, 다한증, 기흉	화, 목	화	*사이버나이프센터	
	박지현	*	여성비만, 산후비만		월			백완기	*	심장질환, 혈관질환	금	화		
	허윤석	*	BMI 30 이상 고도비만환자	화				김정택	*	심장, 혈관, 정맥류, 폐질환	월	월, 목		
	강규철	*	BMI 30 이상 고도비만환자	금				윤용한	*	폐, 식도, 다한증, 기흉	수	수, 금		
	김순기	*	소아비만		수			박종운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화, 목	월, 목		
	이지은	*	소아비만, 소아당뇨		목			박형천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월, 수	수		
	이연지	*	비수술적요법, 성인비만, 만성질환동반, 비만	월, 수	화, 금		정형외과 (☎2380)	김은영	*	뇌신경외과, 뇌종양, 인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월, 수	월, 수		
신장내과 (☎2229)	김문재	*	신장질환, 고혈압	월, 화, 목		혈액투석진료		박현선	*	뇌종양, 중풍, 혈관질환,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월, (화*), 목	(목*), (수)	☐뇌종양, 신경정신과, 성하 신경통클리닉을 통해, 신경통클리닉을 통해, 수외과	
	이승우	*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수, 금	월			현동근	*	뇌신경외과, 뇌혈관질환	수, 금	화, 금		
	송준호	*	해외연수(2008. 2 ~)					윤승환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금	화, (수*), (금), (일)		
신장이식클리닉 센터 (☎2533)	이승희	*			화, 목, 금	클리닉과 병행		최준영	*	두부외상, 척추		화, 금		
	김문재	*	신장이식	화				박승림	*	척추디스크 질환, 척추관협착증, 골절(추추 및 사지)	목			
	김문재	*	혈액투석진료, 복막투석, 신장이식 진료		화, 수, 목, 금			오인석	*	슬관절외상, 인공관절슬관절, 슬관절, 척추 외과, 관절, 스포츠외과	월, 수	수		
복막투석클리닉 (☎2535)	이승우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목			문경호	*	인공관절슬관절, 고관절, 슬관절, 골다공증, 관절염	화, 목	화		
	송준호	*	해외연수(2008. 2 ~)					김명구	*	스포츠외과, 슬관절, 인공관절, 인공관절슬관절, 관절염	월, 수	수		
	송준호	*	해외연수(2008. 2 ~)					강준순	*	인공관절슬관절, 고관절, 슬관절, 관절염	월, 수	월		
	김문재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목			김려섭	*	슬관절, 건관절, 스포츠외과, 관절염	목	화, 목		
	이승우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화, 금			조규정	*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측만증, 골다공증	화, 금	수		
	송준호	*	해외연수(2008. 2 ~)					이동주	*	수부, 상지, 종양, 관절염	화, 금	월		
	김문재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목			강석봉	*	척추		금		
	이승우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화, 금			이 문	*	슬관절, 건관절		월		
	송준호	*	해외연수(2008. 2 ~)					정새롬	*	인공관절슬관절, 고관절, 슬관절		목	화, 목, 금	
	송준호	*	해외연수(2008. 2 ~)					일 반				화, 목, 금		

토요일 오전진료는 순환기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류마티스내과, 정형외과, 비뇨기와,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치과, 피부과만 가능하오니 기타 진료과의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과의 사정에 따라 진료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청색) : 클리닉만 진료

진료과	교수명	선택 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진료과	교수명	선택 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성형외과 (☎3870)	황 건	*	얼굴외상 및 기형, 선천기형, 미용	화, 목	화		이비인후과 (☎2420)	장태영	*	비과, 코(성형), 알레르기	수, 목	월	코성형 : 수요일
	황진희		손외과 및 미세수술 화상, 미용	월, 수, 금	수			김영모	*	두경부종양(목), 음성언어(편도X)	화, 목		△아지라움중클리닉
피부과 (☎2230)	일 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정신과 (☎3880)	김규성	*	아지럼, 난청, 인공와우이식, 중이염, 편도	(수), 금	화, (수)	대행클리닉(39)
	최광성	*	모발, 조짐질환, 여드름, 모발이식, 피부외과, 레이저, 비만	월, 화, 목	수, (목)			최호석	*	중이염, 난청, 보청기, 인공와우, 편도	월, (수)	수, 목	대행클리닉(44, 45)
	신정현	*	이비인후과, 알레르기, 비염, 두드러기, 피부미용	수, 금	월, 화, (금)			양태용		이과, 비과, 두경부, 편도	월	금	
	이현숙		간선, 여드름, 피부미용, 레이저	화	(화), 수, 목			김보목		이과, 비과, 두경부, 편도	금	화, 목	
	이승규		모발, 모발이식, 피부미용외과	금	화, (수), 금			한길수		이과, 비과, 두경부, 편도	화	금	
비뇨기과 (☎2360)	일 반			월, 수, 목	(월), 목		신경과 (☎3860)	일 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서준규	*	성기능장애, 여성배뇨장애, 불임	화, 금	화			강민희	*	정신분열병, 우울증, 알콜중독, 노인성정신장애	수, 금	월, 화	우울조울병클리닉
	박원희	*	요실금, 중앙, 전립선질환	월, 수	수			김철승	*	난치성 항불안장애, 외상성장애, 불응성 조기사정	월, 목	수, 목	조기사정클리닉
	윤상민	*	중앙, 결석, 신이식	월, 목	목			이정섭	*	소아청소년정신과학, 학습, 주의력, 언어, 이능장애	월	화, 목, 금	학습장애클리닉(38, 39)
	성도환	*	중앙, 결석, 전립선질환	화, 금	화			배재남	*	노년기 우울증, 기억장애, 치매, 노년기 정신장애	화, 목	월, 수	노년기치매클리닉
산부인과 (☎2270)	이택	*	소아배뇨, 소아 및 성인배뇨장애, 야뇨증	목	월, 목		재활의학과 (☎2480)	선우영경		소아청소년정신과, 성인정신과	수	월, 금	
	류지간	*	전립선질환, 요로결석, 비뇨기외상	수	월, 수			일 반			월, 화, 수, 금		
	일 반		일반비뇨기		월, 화, 목, 금		가정의학과 (☎2240)	하종건	*	운동장애, 퇴행성질환	화, 수	수, 목	운동장애클리닉
	이우영	*	부인과종양	화, 목, (금), (수)	(수)	□여성암센터		나정호	*	뇌혈관질환, 뇌졸중	화, 금	화, 금	뇌졸중클리닉
	이병익	*	중앙학, 불임, 폐경기	수, 금	월, 목	△비만센터		최성혜	*	치매, 기억장애	수, 금	화, 수	기억, 언어장애클리닉
여성암센터 ☎2560	임문환	*	주인위핵, 대장선종양, 유전학, 알선산부인과학	화, 목	월, 화		국제클리닉(☎2455)	윤창호		해위연수(2008. 8 ~)			
	송은섭	*	부인종양	월, (화), (수)	금			송은철		말초신경질환, 자율신경질환, 두통, 뇌졸중	월, 목	월, 금	
	황성욱	*	중앙학, 복강경	(화), (목), 금	화			일 반			월, 목	월, 화, 목, 금	수원클리닉
	박지현	*	주산기의학, 산과초음파	월, 수	(월), 수, 목			정한영	*	뇌졸중중증, 소뇌발달장애, 장애평가, 뇌성마비	월, 금	(수), 목	뇌성마비클리닉
	조영업	*	유방, 내분비외과	월, 수, 목			방사선종양학과 (☎3070)	김창환	*	근골격계종양, 오십견, 말초신경병변	화, 수	수	
영상의학과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	화, 금	월			김영옥	*	척추수상, 언어장애, 발동증, 의지보조기	목	월, 화, 금	*언어장애
	박정미	*	유방, 내분비외과		수, 금			일 반		일반재활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김윤정		유방방사선학		(월), (수)	■방모통 기술	영상의학과 (☎2740)	최지호	*	가족건강관리, 금연	월, 화, 목	화, 수, 금	진전센터파견
	손은섭	*	부인과종양	화, 수	수			이연지		항노화영양요리, 생활습관교정	(월), (수), 금	(화), 목, (금)	△비만센터
	황성욱	*	중앙학, 복강경	월, 목				일 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소아청소년과 (☎2260)	조영업	*	유방, 내분비외과	월, 수, 목				일 반	*	신체검사(세화, 비자용) 영문진단서	월, 수, 목	월, 화, 수, 목, 금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	화, 금	월		방사선종양학과 (☎3070)	이두익	*	통증치료	화		
	박정미	*	유방, 내분비외과		수, 금			차영덕		통증치료	월, 수, 금	월, 금	
	김윤정		유방방사선학		(월), (수)	■방모통 기술		고희창		통증치료	목	화	
	손병관	*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질환	월	목	만5세까지 소아과진료		일 반	*			수, 목	
안과 (☎2400)	홍영진	*	심장, 감염	목, 금	월		사이버 방사선 센터 신경외과 (☎3076)	김원홍	*	HIFU 초음파 치료	월, 수	월, 화, 수, 목	
	김순기	*	혈액, 중앙, 내분비, 비만, 성장	수, 목	월 (수), 목	□비만센터		조순구	*	중재적 방사선학	월, 수, 목	월, 수	
	전용훈	*	신생아, 미숙아, 발달	월, 목	화, 수	△소아내시경		전용선	*	중재적 방사선학	화, 금	화, 금	
	임대현	*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화, 수	월, 목			김우철		소화기암, 폐암, 뇌암, 두경부암, 혈액암	화, 목, (금), (수)	월, (화), 목	*사이버사이프센터
	김정희	*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월, 수	화, 금			김현정	*	유방암, 비뇨기과암, 두경부암, 부인암	월, 수	(월), 수, (목), 금	치매관련도센터
안과레이저(☎2400)	권영세	*	신경, 간질, 유전성대사질환	화, 수	월, 목		핵의학과(☎3160)	박현선	*	뇌종양, 뇌혈관기형	화	목	
	이지은	*	신장, 내분비, 유전	화, 목	수, (목), 금			윤승환	*	척추, 척수, 원발성종양		수, 금	
	강성길	*	소화기, 소아내시경	월, 목, (금)	(월), 화, 금	△소아내시경		현인영		동위원소치료	월, 수, 금	월, 수, 금	
	안소현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화, 금	수			임종한		환경생물, 화학물질관리, 직업성호흡기질환, 고령	화, 목	화, 목	
	일 반							박신주		직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사업장 보건관리	월, 금	월, 금	
안과레이저(☎2400)	오종협	*	백내장, 녹내장	월, 목	화	항공감유전클리닉	치과 (☎2470)	김환철	*	직업성질환, 근로자건강증진	수		
	문연성	*	망막, 유리체, 포도막	화	수, 목			김일규	*	구강 악안면외과, 인플란트, 매식	월, 화, 수, 금	화, 목	인공치아클리닉
	진희승	*	망막, 유리체, 백내장	수, 금	월			오남식		보철과	화, 목, 금	월, 화, 금	
	강성모		안성형, 사시	월, 수	금			장금수		구강외과	수, 목	월, 수, 금	
	일 반			화,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이연화		교정과	월, 수, 금	화, 수, 금	
응급의학과(☎2301)	김경화		보존과	화, 수, 목	월, 화, 목		응급의학과(☎2301)	최돈옥		소아치과	월, 수, 목	월, 수, 목	
	일 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일 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김원철	*	직업성질환, 근로자건강증진	수				일 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김일규	*	구강 악안면외과, 인플란트, 매식	월, 화, 수, 금	화, 목	인공치아클리닉		일 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오남식		보철과	화, 목, 금	월, 화, 금			일 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국내 최초 3세대 초음파 암치료기 무통 · 무혈 **하이프(HIFU)**



3세대 초음파 암치료기 하이프(HIFU)는?

수술용 초음파 발생장치와 진단용 초음파 발생장치를 결합한 장비로써 실시간 암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암세포에 초음파를 집중 집속하여 온도 70~100도 이상 열을 가해 암세포를 과사시켜 치료하는 첨단 장비입니다.

하이프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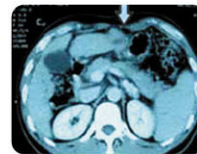
-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아 합병증 및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 통원치료 및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 시술시 무마취, 무통증 치료입니다.
- 정상세포 및 기관에 중독작용이 없고 환자 회복이 빠릅니다.
- 실시간 시술함으로써 정밀도가 높고 주위 정상조직 손상을 최소화하여 단독, 반복, 병합 치료가 가능합니다.
- 암 면역력이 높아지고 통증은 감소됩니다.
- 중앙세포의 자살 유도 작용으로 종양을 치료합니다.
- 체장 및 말기암 환자의 치료와 통증 완화에 효과가 탁월합니다.

치료 가능한 질환

간암, 췌장암, 자궁근종,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후복강고형암, 악성 뼈종양, 악화된 말기 암환자의 통증 완화

치료결과 예시

간암



△ 치료전



△ 치료후

췌장암



△ 치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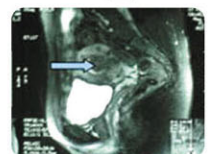


△ 치료후

자궁근종



△ 치료전



△ 치료후